

<서평>

인도네시아 드림, 코리안 드림

전제성·유완또. 2013.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이주를 통한 문화교류』. 서울: 이매진.

오 명 석*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체의 노동문제를 오랜 동안 연구해 왔으며, 또한 참여연대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국제적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정치학자 전제성 선생과, 서강대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인도네시아인 학자 유완또 선생이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이다. 필자들은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한 것일까? 책의 머리말에서 필자들은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꿈과 현실을 담아내고자 했다”(9쪽). 투자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가들의 ‘인도네시아 드림’과 취업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와 여성의 ‘코리안 드림’이 현실에서 어떻게 굴절되거나 좌절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술이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들은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점증하는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mysoh@snu.ac.kr.

이주와 교류의 결과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낙관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필자들은 그 미래에 대한 자신들 나름의 꿈을 갖고 있으며, 그 꿈의 단초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가와 그들의 한인 2세에 의해서, 한국에 이주해 온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와 여성에 의해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드림’은 현실에서 좌절되었는가? 풍부한 자연자원, 저렴한 임금, 거대한 시장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한인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2012년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3위의 투자국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드림’은 오히려 성공 사례로 꼽을 만 하다. 약 4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러한 성공 신화를 뒷받침 해주는 뚜렷한 징표이다. 하지만, 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성공의 이면에 깔려 있는 굴절과 왜곡의 모습이다. 의류,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주로 진출한 한인 기업들은 1980-90년대에 노사분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으로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주목을 받아 전국적 악명을 얻기도 하였다. 한인 기업의 노사분규에 개입하면서 노동인권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필자의 표현에 의하면 한인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60쪽).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구속되기까지 한 한인 기업의 사장이 그 사건을 이유로 국제노동절기념식에서 메이데이의 수상자로 뽑혔다는 사실은(68쪽) 위의 언급이 단지 필자들의 냉소적 평가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인 기업에서의 노사분규는 병영식 노무관리와 같이 한국에서의 기업경영 방식을 현지인과 현지문화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밀어붙인 데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필자들의 진단이다. 부드러움(halus)과 느긋함을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는 인도네시아인에게 한인 기업가와 중간관리인들은 거칠고 (kasar), 성미 급하고 때로 폭력적인 ‘추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사분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로서 화장실 사용을 심하게 통제하고,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을 불허하고, 기독교도인 사장이 무슬림 직원들에게 기독교식 채플을 강요했다는 얘기는 비록 초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가히 충격적이며, ‘인도네시아 드림’의 굴절과 왜곡이 어느 정도 심각했던 것인지에 대해 실감하게 한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도 폐쇄적 성격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소 과장된 묘사일 수 있지만 아래의 글은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일상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카르타의 한국인들은 한인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인 회원에서 꽃을 사고, 한인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한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사고, 한인 운송사를 통해 이삿짐을 부치고, 한인 슈퍼마켓에서 한국 식품을 사고, 한인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피부 관리를 받고, 한인 스파에서 사우나를 하고, 한인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84쪽).

이러한 상황을 한인 서비스업체의 발전상으로 읽기에는 무언가 불편한 심정이 든다. 필자들이 의도하는 바도 바로 그러한 불편한 심정을 노린 것이며, 한인 사회의 폐쇄성과 고립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꼬집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들은 ‘인도네시아 드림’이 굴절되고 왜곡되었다는 진단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인 기업들이 현지화 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한인회 신입회장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한인 2세들의 일부가 인도네시아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가교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미래”로 평가하고 있다(89쪽). ‘인도네시아인 드림’ 자체가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필자들은 ‘인도네시아인 드림’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좁은 의미의 ‘인도네시아인 드림’이 인도네시아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보다 큰 꿈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필자들의 꿈이기도 하다.

‘코리아인 드림’은 현실에서 좌절되었는가? 취업 기회와 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의 수는 2012년에 약 3만 8천명 정도에 이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에서 8위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노동자이며, 이주노동자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인도네시아인 경쟁률이 매우 높듯이 한국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코리아인 드림’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들은 이들의 ‘코리아인 드림’을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태도에 대해 경계한다. “일과 사랑, 성취의 미래로 연결되는 땅으로서 한국이 상상됐고 이를 인도네시아인들의 ‘코리아인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98쪽).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 의식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코리아인 드림’에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생기게 한다는 것이 필자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스스로의 노

력은 재한인도네시아인회와 같은 자조적인 단체를 구성하거나, 록 밴드와 같은 취미 동호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이들의 꿈과 애환을 그들의 노래에 담아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단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에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필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는 희생자적 관점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희생자적 관점은 이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온정주의적 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필자들은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희생자가 아니고 주체로 바라볼 때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이들의 ‘코리아인 드림’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제 필자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분명해진 것 같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이주의 현실은 고립, 폐쇄성, 차별, 일방적 교류라는 역사적 침전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필자들이 꿈꾸는 미래는 상호 공감, 상호 인정, 함께 살아가기, 국제 연대, 쌍방향적이고 평등한 교류가 실천되는 세계이다. 경제 중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인간적 관계에 기초한 이해의 증대가 이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현실과 괴리된, 너무나 지당한 격언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그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 내부에서 일부가 이러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은 필

자들의 주장이 단지 학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담론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이 매우 드물게도 한국인 학자와 인도네시아인 학자가 공동 집필한 것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은 필자들 자신이 그러한 변화의 주체들이고, 이 책이 그러한 변화의 산물이자 매개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책에 게재된 사진들 속에서 전제성 선생이 인도네시아 노조원들과 함께, 그리고 록밴드 연주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필자의 삶과 연구의 궤적이 그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